

동강대 교수상조회, 대학발전기금 3000만원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 교수상조회가 대학발전기금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민숙 총장은 "정성을 모아주시는 교수상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한 발전기금을 동강대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만 원을 기탁했다. 이민숙 총장은 "정성을 모아주시는 교수상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한 발전기금을 동강대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남부대, 2023년 하반기 대학평가인증 획득

남부대학교(총장 서범석)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평가가원이 실시한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모든 평가 영역을 충족해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 등 5개 영역 30개 평가준거로 진행했다.

남부대학교는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에 이어 이번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2028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대출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등 정부의 재정지원대상 대학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남부대학교는 윤리인재, 상생인재, 창의인재



라는 인재상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산학협력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대학운영 개선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혁신대학, 지역사회 기여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대학'으로 성장해왔다.

남부대학교는 윤리인재, 상생인재, 창의인재

이효철 호남대교수, 광주시장 표창



호남대학교이효철(사진)은금급구조학과 교수가 최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효철 교수는 시민안전체험관담당 참여 등 주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했으며, 지난해 광주시 주요 행사에서 '나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을 주제로 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위험상황 대처방안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이 긴급상황에서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류갑상 동신대교수, 전남도지사 표창



동신대학교류갑상(사진)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최근 전남지역 정보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류 교수는 전남도 지역정보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남 정보화 시행 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40회 지역정보화연구대회 발표대회' 평가위원장을 맡았다. 또 챗GPT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지역인 정보화 역량 강화에 힘쓰고 지역 정보화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 받았다.

류 교수는 "다양한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KT전남전북본부, 시각장애인복지관서 새해 나눔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2일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쌀 400kg 등 물품을 기부하고 직접 끓인 떡국을 나누는 등 다양한 새해맞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KT 전남전북광역본부 제공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 광산구 돌봄아동 지원 성금



(사)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대표 윤현식)은 최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에 광산구 돌봄 아동 지원을 위해 새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부했다.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들 제공

인사

- ◆조선대학교
◇전보 ▲경상대학 겸 경영대학원 교학팀장 김흥하▲의과대학 겸 의학전문대학원 겸 보건대학원 교학팀장 박행자 ▲사범대학 겸 교육대학원 교학팀장 김현성 ▲연구처 산학관리운영팀 겸 산학협력단 산학관리운영팀 겸 산학협력단 공동장비운영센터 산학관리운영팀장 김창훈 ▲정보전산원 정보개발팀장 최철 ▲대학혁신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장 박인택 ▲글로벌30추진본부 글로벌30추진팀장 이강희 ▲대의협력처 홍보팀장 권광호 ▲기초교육대학 교학팀장 최보혜
◇대학전입 ▲입학처 입학전행팀장 최철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programs for January 3rd.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including '한국의 아침', '한국의 저녁', and '한국의 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일(음 11월 22일 丙寅)

36년생 동반자의 도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48년생 차분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실행하라. 60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72년생 전연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84년생 속사정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96년생 당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주변을 확보하는 기회를 맞이하라. 행운의 숫자 : 44, 67
37년생 폐단을 제거한 후에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49년생 없어진 이후에 후회할 뎡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61년생 여건과 어울려야만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73년생 튀어나오려고 해도 꼭 참고 있는 것이 좋다. 85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국이다. 97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맹점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9, 87
38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돼버릴까 두렵다. 50년생 지나치다면 판국을 깨면서 해로움만 더한다. 62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 하겠다. 74년생 애로 사항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86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98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고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45, 74
39년생 예견한 대로 대처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51년생 절실히 필요로 하여왔던 바를 얻을 수도 있다. 63년생 멀리서부터 길성이 비춰오니 만사여의하라. 75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87년생 정성을 다하다 보면 길한 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99년생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라. 행운의 숫자 : 06, 55
40년생 이미 완전하게 결정된 판국이니 전혀 여지를 두지 말라. 52년생 서로 인연이 박하니 여지로는 아니 되느니라. 64년생 과격적인 방법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6년생 필연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것이 마땅하다. 88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00년생 확인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1, 93
41년생 목적이 부합한다면 문제시할 필요 없다. 53년생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속출한다. 65년생 활동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77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바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된다. 89년생 상대의 모호한 반응으로 답답할 수 있다. 01년생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25, 50
42년생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속명적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만 할 형편에 놓일 것이다. 66년생 배배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78년생 극상의 정점에 와 있으니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생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뒤돌아볼 일이다. 02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0, 95
43년생 주변인들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을 일이 있다. 55년생 실제 내용을 확인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겠다. 67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79년생 외관의 규모까지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91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방심하면 아니 된다. 03년생 대중 남길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7, 99
44년생 시작되자마자 곧 종결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56년생 필연적인 행국이니만큼 각오하고 임하라. 68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거창한 명분에 비해서 실제 실행하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92년생 변동의 폭이 매우 넓다. 04년생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34, 66
45년생 체계적인 정리가 발전의 디딤돌이 된다. 57년생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겠다. 69년생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하고 있었지만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바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81년생 전체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확보하자. 93년생 지금이라도 실행해야 한다. 05년생 범의 등을 타는 기세로 정진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8, 75
46년생 뿌리 깊은 업보가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이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58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70년생 차이가 크게 날 것이니 충분히 감안해야겠다. 82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94년생 희망의 물꼬를 트는 변화가 나타난다. 06년생 고역이 따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1, 65
35년생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7년생 시대에는 어긋나겠지만 최소한의 결실은 있을 것이다. 59년생 남의 일에 나서서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71년생 이합집산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추게 될 것이다. 83년생 길사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95년생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43, 90